뽕나무, 농가 새 소득원 각광

오디·누에분말·동충하초 등 수요 급증

일손도 적게 들어 재배면적 급속 늘어

뽕나무가 농가의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부상하고 있다.

뽕나무는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 열매인 오디를 비롯 뽕잎을 이용한 기능성 식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합성섬유 보급과 저가 중국산에 밀려 사양길에 접어들었던 국내 양잠역시 누에분말과 동충하초 등 건강식품 등이 인기를 끌며 되살아나고 있다.

장성군의 경우 지난 2004년부터 북이·북하면 일대 70여 농가가 20ha에 뽕나무를 심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오디를 생산하고 있다.

오디가격은 kg당 7~8천원으로 복분자(kg당 5~6천원선)보다도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

더욱이 뽕나무는 농약을 치지 않는데다 일손도 적게 들어 고령화된 농가에서도 비교적 손쉽게 재배할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각 시·군에서 대체작목으로 권장하며 재배면적이 급격히 늘고 있어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과 판로확대가 어려울 경우 과잉생산과 가격폭락의 우려를 안고 있다.

현재 오디즙과 오디주·오디차 등이 개발돼 있으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수요를 확대시킬 가공식품 개발이 절실한 실정이다.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최근 누에고치를 컬러로 염색하는 기술을 개발했으며 앞으로 오디와 뽕잎 차 생산이 가능한 신품종 '수성' 뽕나무를 농가에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294ha였던 전남지역 뽕나무 재배면적은 올해 500여ha를 넘어설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송기동기자 song@

영암군 전직원 '혁신화합 한마당'

영암군 공무원과 가족 1천여명은 지난 7일 실내체육관에서 혁신화합 한마당을 열고 각종 경기와 게임을 통해 화합과 우의를 다졌다.

/영암=김한남기자 hnkim@

광양만권 대학 물류인력 교육 실무 무관한 이론만 가르친다

광주상의 지적 … 전남대 여수캠퍼스 등 개선 시급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와 순천대학교 등 광양만권에 소재한 대학이 운영하고 있는 물류전문인력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광주 상공회의소는 최근 작성한 '광양만권 물류산업인력 양성 현황' 보고서에서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와 순천대, 한려대, 광양보건대 등 광양만권 4개 대학이 운영하고 있는 물류전문인력 교육 프로그램이 이론에 편중돼 있고, 물류 실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밝혔다.

광주 상공회의소는 물류 실무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위해 ▲물류산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현장실습기회 확대 ▲ 물류현장 정보 교과과정 반영 ▲ 재학생 물류산업체 위탁교육 및 인턴사원제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광주 상의는 또 "대학생들을 국제물류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외국어 학과와 연계한 수업을 진행해야 하고, IT(정보·기술) 기반 통합 물류인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물류 IT 교육과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 상의는 2011년까지 광양항과 여수항에 총 18선석이 추가 개발되는 계획에 따라 3천881명의 항만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이들 2개 항에 종사하는 항만인력은 2천247명이며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등 광양만권 4개 대학에서 매년 195명의 전문 인력이 배출되고 있다.

/이종태기자 jtlee@

장성군, 조손가정 수당 지원

조례 제정 … 90세이상 노인에도 매달 3만원씩

장성군이 최근 저소득층 건강증진과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조손가정 수당 등 복지급여 지원조례'를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

이 조례는 조손가정에 대한 수당 및 90세 이상 장수자에게 수당 지급, 차상위계층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손가정수당'은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와 18세미만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정에 대해 월 3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장수수당'은 90세 이상 노인에게 월 3만원씩 지급하게 되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세대에 대해 매월 1만원 미만 범위에서 의료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게 된다.

이번 조례제정으로 주민 2천3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장성군은 조손가정 수당 1천422만원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1천700여만원, 장수수당 3천510만원 등 모두 6천600여만원의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했다.

/장성=고재빈기자 jbgo@

순천시 주민세 2,000원씩 인상

순천시가 다음달 부터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2천원 올린다. 이에따라 읍·면지역은 3천원에서 5천원, 동지역은 4천원에서 6천원으로 인상된다.

순천시는 최근 주민세 인상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했다.

지난 7년간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아 전국 시단위 평균 세액(읍·면 4천640원, 동지역 5천68원)보다 낮아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산정시 불이익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순천시는 지난 2005년 1천300만원을 비롯해 2006년 3천만원, 2007년 1억600만원의 교부세를 삭감 당했다.

시는 이번 주민세 인상으로 주민세 증가액 1억7천만원 등 3억2천여만원의 세입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쌍고동

동료의원 사회단체장 취임식 '우르르' 회기중 이석 눈총

○…나주시의회 의원들이 회기 도중 동료 의원의 사회 단체장 취임식 참석차 일제히 자리를 비워 눈총.

○…나주시의회는 제 114회 정례회 기간인 지난 5일 오전 10시부터 40분간 집행부 보고를 받은 뒤 11시로 예정된 A의원의 로타리클럽 회장 취임식 참석을 위해 의장을 비롯한 의원 전원이 자리를 비운 것.

○…이에대해 지역주민들은 "정례회 일정을 미룰 정도로 동료의원의 로타리클럽 회장취임식이 중요한 행사인지 의문"이라고 지적.

/나주=정칠현기자 chjung@

독거노인 영정사진 만들어주기

내장산백암사무소 동호회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장산백암사무소가 지역 노인들의 영정사진을 찍어주는 '아름다운 미소 찾아주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백암사무소 사진동호회는 지난 4일 사회복지시설인 영락양로원을 찾아 70여명의 노인들의 활짝 웃는 모습을 사진에 담았다. 직원들은 십시일반으로 모은 성금으로 액자로 만들어 전달할 예정이다.

최승운 소장은 "앞으로 매월 한차례씩 사진봉사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성=고재빈기자 jbgo@

■ 새얼굴

"주민 생각하는 인권경찰상 실현"

이 영 장성경찰서장

"주민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인권경찰상을 실현하겠습니다"

이 영(59) 신임 장성경찰서장은 "직원 상호간 양보하고 칭찬하는 풍토 조성으로 단결된 장성경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해남 출신인 이 서장은 간부후보(24기)로 경찰에 입문, 전남경찰청 생활안전과장, 광주 북부경찰서장, 광주청 개청 기획단 보안과장 등을 지냈다.

가족으로는 부인 홍성자(55)씨와 2남이 있다.

/장성=고재빈기자 jbgo@

"직원화합 다져 농촌 치안확보 만전"

신 경 문 함평경찰서장

"전형적인 친환경 농업군인 함평의 특성에 맞는 치안확보에 힘쓰겠습니다"

신경문(52) 신임 함평경찰서장은 "아울러 직장내 분위기를 쇄신해 직원화합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신안 출신인 신 서장은 광주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목포·담양·화순 정보과장, 수원 중부경찰서 방범과장, 서울남부서 정보과장, 대통령 법무비서실, 민정수석실 등을 거쳤다.

가족으로는 부인과 2남을 두고 있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살기좋은 영광건설 앞장 서겠다"

신 창 섭 영광 부군수

"군민과 함께하는 위민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근 부임한 신창섭(58) 영광 부군수는 "6만 군민과 공직자가 하나 돼 살기 좋은 고장 건설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광주에서 태어난 신 부군수는 지난 1978년 담양군 대전면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전남도 서울사무소장, 동부출장소장과 기업통상과장을 지냈다.

가족으로는 박해례씨와 1남1녀가 있다.

/영광=조익상기자 ischo@